

德川家 장서목록에 나타난 『삼국유사』 전승의 연구

고운기*

〈차례〉

1. 문제의 소재
2. 두 세트의 叢書
3. 尾張藩의 駿河御讓本과 蓬左文庫
4. 이른바 '禁中'에 빌려드린 서적의 메모'에 대하여
 - 1) 禁中 대출의 배경
 - 2) 서적의 출신 국가별 종수와 해제
- 3) 두 종류의 메모와 그 변화
5. 목록집에 보이는 『삼국유사』의 전승 경위
 - 1) 初主 義直 시대의 목록
 - 2) 18세기 목록 속의 『삼국유사』
 - 3) 明治維新 전후의 목록
6. 德川本 『삼국유사』 전승의 의의
7. 마무리

1. 문제의 소재

주지하다시피 ■삼국유사■는 13세기의 승려인 一然에 의해 편찬되었다. 몇 차례 간행된 듯 어슴푸레한 증거를 남기지만, 확실히는 1512년 조선조 中宗(正德年間 壬申年) 때 마지막으로 인쇄되고 난 다음 아무런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다. 나는 그 답답함과, 오랜 뒤의 극적 반전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국문학.

실제 ■삼 국유사■본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그리고 다시 이 왕조의 멸망과 그 역사를 같이했다. 그러는 동안 이 책은 어떤 대우를 받았던가?贅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잊힌 책이었고 그나마 매우 제한적으로 읽힌 책이었다. 20세기 들어서서야 주목을 받았고, 연구자들 또한 이때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극적인 再發見의 책이었다.¹⁾

400여 년간의 伏流 — 이는 조선조 유학자의 排他性이 강하게 작용한 까닭이었겠다. 저자가 승려인 데다 내용 또한 불교 일색이라고 보아, 조선의 유학자들에게는 忌諱하는 책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던 이 책에 대한 출판과 연구가 20세기 들어 아연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중요한 대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04년에 東京帝國大學의 文科大學史誌叢書(活版, 이하 史誌叢書로 略함)로 ■國遺事■과 간행되었다. 마지막 인쇄인 壬申本으로부터 치면 무려 392년 만의 일이었다. 이 책은 壬辰亂 때 퇴각하는 일본군이 가져간 것을 저본으로 하였다. 1904년 大日本續藏經(活版) 안에 들어갔고, 1926년 今西龍가 경성에서 구한 것으로 알려진 順庵手澤本을 저본으로 京都帝國大學文學部叢書(影印)의 하나로 간행하였다. 경성에서는 이보다 1년 뒤인 1927년에 崔南善이 ■曆明■이라는 잡지에 東京大本과 京都大本을 저본으로 轉載(活版)하였다. ■삼 국유사■ 안에 실린 鄉歌 14수를 풀이한 小倉進平의 ■鄉歌及び吏讀の研究■가 나온 것은 1929년의 일이었다.²⁾

이후 한국과 일본을 사이에 두고 ■삼 국유사■본 붓물 터진 듯 연구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3,000여 편의 저작과 논문이 ■삼 국유사■본

1) 출처, ■한 국 고전시가의 근대■, 서울:보고사, 2007, p.78. 좀 더 자세한 논의는 ■한 위 삼국유사■, 서울:미래M&B, 2006, pp.7~9에서 하였다.

2) 이 과정에 대해서는 別稿 「鄉歌의 근대」에서 자세히 논하였다.

소재로 간행되거나 쓰였다. 이를 두고 나는 '삼국유사의 再發見'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계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결정적인 사건은, 앞서 열거한 가운데, 역시 1904년 史誌叢書 속에 ■三 國遺事■가 들어간 일이었다. 그렇다면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왜 ■삼 국유사■를 그 목록 속에 넣었을까?

史誌叢書는 ■三 國遺事■의 序文에서 '尾州德川侯 在本'과 '男爵神田氏 藏本'을 原本으로 한다고 밝혔다.³⁾ 여기서 神田本은 지금 행방을 알 수 없다. 반면 德川本の 전승과정을 알려주는 자료가 남아있는데, ■尾 張德川家藏書目錄■(전10권)⁴⁾이 그것이다. 이 장서목록은 尾州德川家가 선대의 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물려받은 책과, 그 이후 자체 수집한 책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에도시대 250여 년간 부정기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30여 종을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 목록 가운데 22종이 상기 전10권의 목록집을 통해 공간되었고, 기타 10여 종이 蓬左文庫(호사문고)에 보관되어 있다. 필자는 이번에 이 목록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로 인해 德川家에서 ■삼 국유사■가 보관된 경위를 알 수 있었고, 그 경위에 덧붙여 史誌叢書 편찬자들에게 ■삼 국유사■의 존재가 눈에 띄게 된 素地를 짐작해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을 토대로 1904년 史誌叢書 속의 ■삼 국유사■가 우연히 간행되지 않았다는 점, 역사적 상황 속에서 書物의 가치평가와 활용은 분명한 목적 속에서 기능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이 본 논문에서 자세히 밝히고자 하는 부분이다.

3) 我邦所傳唯二本 一在尾州德川侯 一藏男爵神田氏 (중략) 於是原二家藏本(「校訂三國遺事叙」, ■三 國遺事■, 吉川半七, 1904, p.2) 이 서문은 그동안 학계에 알려진 바와 달리 史誌叢書의 편찬자 가운데 한 사람인 日下 寬이 썼다.(日下 寬, ■鹿 友莊文集■, 卷一 張二十八)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상술.

4) 名古屋市蓬左文庫 監수, ■尾 張德川家藏書目錄■ 1~10, 東京: ゆまに書房, 1999.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일본에서 일본인 학자들이 비록 목적이야 따로 있었겠지만, 소중히 다루고 가치를 인정해 준 데 힘입어 '삼국유사 재발견'의 端初가 되었다면, 그 과정만이라도 바로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 가치의 인정은 깊은 認識과 열린 視角의 문제였다. 한번은 저들에게 기회를 넘겼지만,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아직도 '제2, 제3의 삼국유사'가 나올 가능성은 다분하다.

2. 두 세트의 叢書

여기 두 세트의 총서가 있다. 하나는 '禁中에 빌려드린 서적'이요, 다른 하나는 '史誌叢書'이다. 전자는 1624년 德川幕府의 尾張藩(오와리번)에서 궁중의 後水尾(고미즈노오, 1611-1629) 천왕에게 빌려준 32종 한 세트이고, 후자는 1897년부터 1913년 사이에 東京帝大板 이름으로 간행한 16종 한 세트이다. 먼저 그 면면을 들어 둔다.

1. 治平要覽 조선활자판 129책
2. 淸書 조선판 47책
3. 北史 조선판 51책
4. 群書治要 활자판 47책
5. 東文選 조선활자판 64책
6. 源氏物語抄 사본 40책
7. 齊民要術 金澤사본 9권
8. 續日本紀 사본 13책
9. 策文 사본 1책

10. 三國遺事 조선판 2책
11. 胡芦集 사본 2권
12. 讀書要語 조선판 1책
13. 論語衍義 사본 1책
14. 論學繩尺 당본 6책
15. 公羊穀梁 당본 4책
16. 國語 당본 2책
17. 全漢志傳 당본 2책
18. 兩漢傳志 당본 3책
29. 三國志傳 당본 10책
20. 唐韻 조선판 6책
21. 香山三体 조선판 1책
22. 琴譜 당본 3책
23. 太玄經 당본 2책
24. 楚辭旁注 당본 1책
25. 列子 조선활자판 1책
26. 續東文選 조선활자판 10책
27. 學菴通辨 조선판 2책
28. 全唐風雅 당본 2책
29. 毛詩抄 사본 10책
30. 江湖風月集抄 사본 2책
31. 臨濟錄抄 사본 1책
32. 侍中群要 金澤本寫 10권

이는 禁中 곧 京都에 있던 천왕의 처소에 빌려준 서적 세트 32권의 목록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으나, 임진왜란 때 일

본군이 뺏어간 조선의 책이 1/3 이상을 차지한다. 그 가운데 열 번째가 ■正 國遺事■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책이다. 다음은 史誌叢書 16종 세트이다.

1. 松平記 6卷
2. 家忠日記 6卷 / 松平家忠
3. 三河物語 3卷 / 大久保忠教
4. 大館常興日記 (一名 公儀日記) 6卷 / 大館尙氏
5. 晴豐記 10卷 / 勸修寺晴豐
6. 晴右記 3卷 / 勸修寺晴右
7. 親俊日記 3卷 / 蜷川親俊
8. 親元日記 8卷 別錄3卷 / 蜷川親元
9. 三國遺事 5卷 / 一然
10. 愚管記 26卷 / 近衛道嗣
11. 結番日記 · 親孝日記 · 龔旨記
12. 鶴岡社務記錄 · 正慶亂離志 / 良覺
13. 洞院公定日記 · 玉英記抄 / 洞院公定
14. 興福寺年代記
15. 伺事記錄 1冊 / 飯尾宗勝
16. 三國史記 50卷 / 金富軾

사지총서는 도쿄제대에 국사학과가 설치된 다음 그 교재의 필요성 때문에 발행되었다고 알려진 16권이다. 1897년에 1, 2권이 나온 후 1917년까지 전체 16권으로 마무리한 총서이다. 16권 가운데 아홉 번째가 ■삼 국유사■이고 열여섯 번째가 ■삼 국사기■이다. 이 두 권을 제외하면 모두 에도막부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일기자료 중심이다.

에도막부 시기의 사료를 중심으로 엮었음에 틀림없는 이 총서에 ■삼 국유사■와 ■삼 국사기■가 들어간 데 대해서는 자리를 달리하여 설명해야겠으나, 요약하자면 한국의 고대사와 관련된 학계 나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苦肉之策으로 보인다. 그것은 특히 ■삼 국유사■에 와서 그렇다.

이상 두 세트의 총서에 공통되는 점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禁中에 빌려드린 서적'은 말할 나위 없지만, '사지총서' 또한 德川家에서 나온 일기 자료가 중심, 곧 德川家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두 총서에서 유일하게 겹치는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삼 국유사■다. 이 두 가지는 서로 補足の 관련성을 가지고 ■삼 국유사■에 접근하게 만든다.

■삼 국유사■를 어쩌다 두 세트에 모두 들게 되었을까. 일본에서 두 세트는 각각 江戸時代와 維新時代를 상징할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누구의 눈에 띄었고 어떤 목적에서 ■삼 국유사■를 그 의의 속으로 들어갔을까.

기실 1904년 도쿄제대 사지총서의 하나로 간행된 근대 활판본 ■삼 국유사■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20세기 삼국유사 재발견'의 도화선이 되었다. 앞서 밝힌 바, 서문에서 神田本과 德川本이 그 저본이라 밝히고 있는데, 이후 神田本은 행방불명되었으나, 德川本은 지금 名古屋(나고야)의 蓬左文庫에 보관되어 있다. 최초 저본의 가능성은 神田本에 더 있어 보이지만,⁵⁾ 德川本이 지닌 전승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지총서 편찬자의 瞥見이나 채택에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⁶⁾

5) 東京大學刊此書時 據神田本(內藤虎次郎, 「景印正德本三國遺事序」, 『國遺事』, 京都: 京都帝國大學, 1926, 張二).

6)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상술하였다.

어쨌건 우리는 이것을 '1904년 삼국유사'라 부르기로 한다. 이 책의 간행과정과 그 중요성은 다시 자세히 쓰겠지만, 600여년을 잠들어 있던 ■삼국유사■는 일거에 한국의 고대사와 고대문화를 이해하는 거의 유일한 책으로 돌출했는데, 그 계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채 20세기 100여 년의 세월을 흘러보냈다.

두 세트의 총서는 이를 설명해 줄 중요한 고리를 갖고 있다. 게다가 세 德川家 가운데서도 서적을 가장 모범적으로 관리 보관하여 지금의 蓬左文庫에 이른 尾張藩의 역대 도서목록을 통해 중대한 사실들을 확인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사실로 일본으로 건너 간 ■國遺事■의 행방을 좇다보면 뜻밖의 문화사적 의의에 도달하게 된다.

3. 尾張藩의 駿河御讓本과 蓬左文庫

나고야는 織田信長(오다 노부나가) · 豊臣秀吉(토요토미 히데요시) · 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배출한 지역이다. 戰國時代의 풍파를 잠재우고 일본 역사의 근세를 열었던 풍운아 세 사람이 한 동네 출신이었다는 점이 이채롭다. 흔히 秀吉는 信長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家康는 秀吉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말한다.⁷⁾ 때로 대립했지만 세 사람은 결국 한 팀이었던 것이다. 알다시피 최종 승리자는 1603년에 江戸(에도) 막부를 연 家康이었는데, 웬일인지 그는 수도를 고향인 나고야에 두지 않고 에도(지금의 도쿄)로 갔다. 대신에 나고야에는 尾張藩(오와리번)을 만들고 藩主에 총애하던 아들 德川義直(도쿠가와 요시나오, 1600~1650)를 심는다. 1607년 家康는 義直에게 나고야 62萬石을 주었고,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던 義直는 1615(元和1)년에 와서

7) 岩中祥史, ■古屋學■, 東京:新潮社, 2000, p.56.

藩主로 본격적인 관할을 시작한다. 그의 나이 불과 15세 때의 入封이었다.

처음에 나고야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었다. 에도 막부 산하 尾張藩의 시대부터 근세도시로 발전한, 이른바 신흥도시이다. 그러나 나고야는 本州에서는 매우 드물게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水量도 넘쳐 식수나 농업용수에 모자람이 없었다.⁸⁾ 많은 인구를 품고 농사 또한 대체로 풍년이였다. 家康는 번을 세우고 아들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내린다. 나고야성을 지으면서 木曾川에 제방을 쌓아 홍수를 막고 풍부한 물을 확보하게 하였다. 나아가 번의 영역을 넓혀 주고 막대한 양의 금은을 보냈다.⁹⁾ 번을 연 지 40년 만에 인구 6만 명의 도시로 발전¹⁰⁾한 데는 이 같은 막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크게 뒷받침되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尾張藩의 다른 특징으로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막부와의 특수 관계이다. 將軍家에 대한 尾張家は 宗家와 分家の 관계인 바 소위 '御三家'로 대접받은 것이지만, 그것은 家康와 義直가 父子의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만은 아니고, 義直의 아들 光友(미츠토모, 2대 번주)에게 장군 家光(이에미츠)의 딸 千代姫(치요히메)가 시집을 간 데서 양가의 관계는 한층 밀접하게 묶여진다.¹¹⁾

家光는 아버지 秀忠(히데타다)를 잇는 제3대 장군이고, 尾張藩 義直의 조카였다. 그러므로 義直의 아들인 光友는 종질녀와 결혼한 셈

8) 위의 책, p.47.

9) 林 董一 編, ■尾 張藩家臣團の研究■, 東京:名著出版, 1975, p.18~19.

10) 위의 책, p.19. 1664년의 통계에 따르면, 이 해 尾張藩이 거둬들인 62만 석은 전체 250여 개 번 가운데 薩摩藩의 73만 석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藤井讓治, ■江 戸開幕■, 東京:集英社, 1992, pp. 204~205.

11) 위의 책, p.21.

이다. 본디 家康의 아들이 직접 藩主를 맡은 곳이 도쿄를 중심으로 한 세 곳 곧 尾張, 紀伊, 水戶였다. 이를 御三家라 부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尾張藩을 특별히 여기며 重緣關係까지 맺은 것은 나고야가 갖는 전략적 요충이 감안된 결과였다. 바로 關西地方에 대한 견제 역할이었다.¹²⁾

1616(元和2)년 德川家康가 죽자 그 유품 대부분, 특히 家康가 애써 모은 책이 尾張, 紀伊, 水戶의 세 아들에게 나눠졌다. 각각 5:5:3이었다. 통설로는 5를 차지한 尾張藩의 義直가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책들을 물려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비뽑기를 해서 나누었다는 설명도 있다.¹³⁾ 이는 家康가 셋 중 나이가 가장 많으며, 책 읽기를 좋아하고 총명해서 일곱째 아들인 義直에게 善本을 물려주었다는 앞서의 통설과는 크게 다르다. 어쨌건 이를 駿河御讓本¹⁴⁾이라 부르고, 이를 계기로 尾張藩에서는 御文庫를 만들었다. 이에 비해 다른 번은 그다지 흥성하는 모습이 아니다.

御文庫는 이어지는 藩主에 의해 충실히 늘어났다. 기실 家康로부터 遺贈된 駿河御讓本 약 400종 3,000책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뺏어온 고활자판이 중심¹⁵⁾이었고, 金澤文庫 舊藏의 古寫本 등 稀覯本이 포함되어 있다. 關が原(세키가하라) 전투에서 豊臣秀吉를 따랐던 서군을 격파하고 승리하여 새로운 막부를 연 征夷大將軍 德川家康에게 지방

12) 위의 책, p.18. 關ヶ原(세키가하라) 전투는 주지하다시피 家康의 동군과 秀吉를 따랐던 서군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었고, 家康가 승리한 결과 에도막부가 들어섰지만, 패한 관서의 여러 지역이 표면적으로는 막부에 승복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장악되었다고 할 수 없었다.

13) 名古屋市蓬左文庫 감수, ■尾張德川家藏書目錄 3 ■, 東京:ゆまに書房, 1999, p.313.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앞으로 이 전집에 대해서는 ■尾張德川家藏書目錄 ■과 순번만 표기한다.

14) 駿河는 德川家康가 거처하던 곳, 곧 家康를 가리킨다.

15) 이 가운데 조선본은 142종 1,386책으로 조사되었다. 千惠鳳, ■■本蓬左文庫韓國典籍 ■, 서울:지식산업사, 2003, p.35.

의 번주들은 앞 다투어 선물을 바쳤던 것인데, 서적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조선에서 가져온 책을 포함시켰다.¹⁶⁾ 여기에다 義直는 스스로 부지런히 책을 모아, 이미 자기 代에서만 1,700종 19,000책으로 늘려 놓았고, 역대 藩主의 장서나 藩士의 헌납본 등이 더해져 幕末에는 5~6,000종 5~60,000책에 달했다.¹⁷⁾ 이것은 물론 앞서 밝힌 바 尾張藩의 충분한 경제력과도 관련이 된다.

御文庫의 壯麗는 양에만 있지 않았다. 1658(万治1)년에는 書物奉行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조직적이며 과학적으로 서적을 관리하였다. 이런 직책은 물론 다른 번에는 없는 것이다. 서적관리 전담자인 書物奉行을 통해 얼마나 치밀하게 관리하였는가는 다음에 소개할 목록 작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목록은 총 32종 정도 만들어졌던 것 같고, 유실본 10종을 제외하면 현재 22종이 전래된다.¹⁸⁾ 뿐만 아니라 서적의 부패를 막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風入(曝書) 등을 행하고, 복본이 있는 경우에는 家中에 대출도 해 주었다.¹⁹⁾ 일종의 도서관 역할을 한 것이다. 오늘날 '나고야학'이라는 불리는 일군의 학자와 학문적 성과가 여기서 탄생한다.

그러나 막부의 시대는 언제까지 계속되지 못했다. 明治維新의 칼바람은 廢藩置縣의 정책 아래 尾張藩에도 불어 닥쳐 결국 종막을 고한다. 사실 尾張藩은 討幕派에 서서, 그들 자신이 徳川の 한 집안이면서

16) 바치지 않았던 번주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加賀藩의 前田利家이다.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상술.
 17) 山本祐子, 「尾張徳川家の文庫と藏書目録」, 『尾張徳川家藏書目録 1』, ■東京:ゆまに書房, 1999, p.8.
 18) 山本祐子, 위의 글, pp.13~19. 이 논문에서는 ■尾張徳川家藏書目録■에 실린 16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소개한다. 이와 별도로 内閣文庫의 1종을 추가하였다. 필자는 山本가 제외한 목록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시 조사하였다.
 19) 위의 글, p.10. 목록 가운데는 藩主가 이용한 책, 藩士들에게 책을 빌려주며 작성한 일종의 대출 장부도 있다. 1651년에 만들어진 『慶安四年御書籍拂帳』 1책이 그것이다.

도 신정부 편을 들었고, 변하는 세대에 기여하며 살아남으려 노력했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明治 신정부의 눈에 그들이 곱게 들어올 리 없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신정부는 19세기 말부터 제국대학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서 성립한 모두 9개의 제국대학 가운데 나고야 제국대학은 가장 늦은 1939년에 세워진다. 九州(1911), 北海道(1918)보다 늦을 뿐만 아니라, 京城(1924), 臺北(1928)에도 밀려났다. 당시 일본 제3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遲延이 상징하는 바는 곧 明治 신정부로부터 나오는 막부 세력에 대한 내밀하고 끈질긴 경계심의 표출로 밖에 볼 수 없다.²¹⁾

尾張藩의 운명은 곧 御文庫의 운명을 결정했다. 장서 가운데 3분의 1이 팔려나갔다. 물론 귀중서는 끝까지 지키려했고, 주로 複本을 중심으로 처분을 했다. 이 덕분에 ■삼 국유사■²¹⁾ 팔리는 신세를 면할 수 있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御文庫는 후손이나 후원회의 힘을 입어 연명했고, 드디어 나고야시에 자리를 잡아, 지금은 시립 德川美術館과 함께 蓬左文庫라 이름 한 도서관으로 거듭나 있다.

20) 막부를 지킬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尾張藩은 도리어 반대방향이였다. 중부 이북의 여러 번들은 尾張藩의 결정에 따라 討幕에 섰던 것이다. 林 董一 編, 앞의 책, p.22.

21) 더욱이 대학에는 의학부와 이공학부만 있는 단출한 구성이었다. 문학부가 없는, 당시로서는 不具의 대학이었던 것이다. 한편 제국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예비학교의 성격이 띠었던 고등학교도 도쿄의 一高에서 시작하여 여덟 개가 만들어지는데, 나고야는 熊本(五高), 鹿兒島(七高)에 이어 가장 마지막인 八高이다. 熊本이나 鹿兒島가 明治維新의 절대공헌자임을 감안하면, 나고야는 줄곧 소외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들 말한다. 岩中祥史, 앞의 책, pp.25~27.

4. 이른바 ‘禁中에 빌려드린 서적의 메모’에 대하여

1) 禁中 대출의 배경

蓬左文庫에 남은 22종의 목록 가운데 ■삼 국유사■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禁 中에 빌려드린 서적의 메모■이다. 현재 2부가 남아 있는데, 冒頭에 소개한 1624(寬永元年)년에 만들어진 것과, 이보다 두 甲子가 흐른 뒤인 1743(寬保3)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앞서 밝힌 바, 1611년 德川 막부는 豊臣秀吉가 옹립한 後陽成(고요제) 천왕을 퇴위시키고 後水尾(고미즈노오) 천왕을 즉위시켰다.

後水尾 천왕의 즉위는 바야흐로 德川家가 완전히 권력을 쥐었다는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었는데, 德川家康가 그 아들 秀忠(히데타다)에게 권력을 물려 준 6년 뒤, 물론 秀忠의 뒤에서 大御所政治를 하던 시기이다.

家康는 1615년 武家諸法度, 禁中 및 公家諸法度, 諸宗諸本山諸法度を 연달아 제정, 반포했는데, 여기서 家康가 가진 생각은 구체화된다.

(武家)諸法度の 제1조에서 “文武弓馬의 도에 정진할 것” 원래 무사는 弓馬人이었지만, 여기에서는 문을 무와 함께 중요한 덕목으로 규정하고 있다.²³⁾(괄호 안은 필자)

22) 名古屋市蓬左文庫 監수, ■尾 張德川家藏書目錄 1■, ■東京:ゆまに書房, 1999. 원제는 ‘禁中へ御借シノ御書籍之覺’이다.

23) 朝尾直紅 외 엮음·이계황 외 옮김, ■세 로 쓴 일본사■, ■창비, 2003, p.267. 나아가 1683년 제5대 장군 綱吉는 이를 개정하여, “문무중호에 힘쓰고, 예의를 바르게 하라”고 하였다. 이는 분명 武斷에서 文治로의 전환을 보여 준다. 위의 책, p.289.

이는 家康의 자손이나 藩主와 같은 大名(다이묘)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나아가 천왕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17조로 이루어진 금중 및 공가제법도의 제1조에서, “천자의 여러 예능의 일 가운데 첫째는 학문이다”²⁴⁾라고 못 박는다. 이는 천왕의 행동을 규제하는 사상 최초의 일²⁵⁾이었다. 家康가 이 법도를 만들면서 얼마나 신중을 기하였는가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법도는 大御所 家康와 장군 秀忠 그리고 關白에 복귀한 二條 昭實(니조 아키자네)와의 연명으로 냈으며, 무가제법도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대어소 家康의 손으로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 법도가 대어소 家康의 이름만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 또 무가제법도가 장군 秀忠의 이름으로 나온 데 비해 이 법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 나아가 발포 직전까지 당초 이 법도에 秀忠가 서명할 예정이 없었다는 점 등이 무가제법도와의 차이로 들 수 있다. 천왕의 행동을 규제하는 조항을 집어넣은 이 법도를 냄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家康가 얼마나 부심하였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²⁶⁾

家康의 부심, 그것은 제아무리 허수아비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천왕은 천왕이고, 家康가 천왕에 대한 명분과 실리에서 완전한 주도권을 잡는 일이야말로 막부 초기의 입지를 굳히는 관건이었기 때문이었겠다. 더욱이 後陽成 천왕의 양위를 받아낼 때에도 상당한 신경전이 계속되었음을 감안하면, 자칫 천왕에 대한 느슨한 견제는 아직 관서 지방을 중심으로 남아 있는 정적의 반격을 불러 올 가능성도 배제할

24) 藤井讓治, ■江 戸開幕■, 東京:集英社, 1992, p.102. 원문은 “天子諸藝能之事 第一 御學問也”이다.

25) 藤井讓治, 위의 책, 같은 부분.

26) 藤井讓治, 위의 책, pp.103~104.

수 없었다. 그런 家康의 심중은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전적으로 馬上에 앉아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본디부터 生知神
聖의 性質이라면, 馬上에서 다스릴 수밖에 없는 도리를 갖기보다,
늘 성현의 도를 尊信하며 널리 천하국가를 다스리고, 사람의 사람
다운 길을 가게 한다면 이 밖의 도는 없으리라.²⁷⁾

지금까지 무력으로 권력을 틀어쥐었다면, 이제부터 守成의 도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그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 언급이다. 武治에
서 文治로 바뀌는, 그렇게 천하국가를 다스리는 방향의 전환이 있어
야 함을 후손들에게 직접 언급하는 대목이다. 家康의 말에는 그가 천
왕에 대해 어떤 역할을 바라고 있는지, 은근하고 간접적인 요구사항
이 담겨있다고도 할 수 있었다.

義直(요시나오)는 아버지의 뜻을 적확히 이해하였다. 1621(元和 7)
년에는 교토로부터 유학자 角倉素庵(스미노쿠라 소안, 1571-1632)을
불러, ■實 記■■ ■通 鑑■ ■강이나, 일본의 옛 기록을 模寫하게 하는 등,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御文庫의 충실에 힘을 쏟았다.²⁸⁾ 그리고 3년
뒤인 1624년, 義直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책 가운데 32종을 골라
'학문의 목적'으로 천왕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천명한 바
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긴 셈이다. 그러면서 일종의 도서대출장부로
서 ■簿 中에 빌려드린 서적의 메모 ■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개재되어 있다.²⁹⁾

제2대 장군 秀忠(히데타다)의 다섯째 딸 和子(카즈코)가 後水尾(고

27) 金城學院大學エクステンション・プログラム, ■尾 張名古屋の人と文化■■, ■ 名古
屋:中日新聞社, 1999, p.11에서 재인용.

28) 金城學院大學エクステンション・プログラム, 위의 책, p.12.

29) 여기서부터는 藤井讓治, 위의 책, pp.112~118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미즈노오) 천왕의 왕비가 된다. 1620년 6월 18일의 일이었다. 스물네 살의 천왕은 열네 살의 어린 신부를 맞아들였는데, 그 과정이 무척 복잡하다. 비록 德川 막부에 의해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後水尾는 아직까지 그 힘을 잃지 않고 있었던 관서의 여러 다이묘들을 이용해 막부와 교묘히 힘의 균형을 이루려 했다. 和子를 왕비에 앉히려는 막부의 계획은 161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後水尾 천왕이 쉽게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616년에는 德川家康가 사망하는 돌발 변수가 일어난다. 成事까지 6년이나 걸린 데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일단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는 조정과 막부 사이에 순탄한 기류가 만들어졌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딸을 낳았고, 다음 해에 和子は 正室이 되었다. 바로 尾張藩(오와리번)의 책 32종이 천왕에게 전해지는 1624년의 일이다.

막부에서는 자신의 일족이 번주로 있는 번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다이묘들에게 선물을 들고 조정에 자주 들락거리게 하였다. 尾張藩의 義直는 말할 나위 없었다. 이 때 義直가 조정에 들고 간 선물 가운데 32종의 희귀한 책이 포함되었음 또한 두말 할 필요 없겠다.

이런 두 가지 배경을 놓고 볼 때, 義直가 선정한 32종에는 책의 내용을 넘어선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後水尾 천왕이 이 책을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후일담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천왕은 1626년까지 막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다소 신경질적인 그는 1629년, 막부와의 사이에 생긴 문제로 돌연 讓位를 택하고 만다. 거기에 천왕과 和子 사이에 낳은 딸이 불과 여섯 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明正(메이쇼) 천왕이라는 이름을 받는다.

그런 와중에 尾張藩에서 천왕에게 다시 책을 보냈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처음에 갔던 32종만이 고스란히 돌아와 尾張藩의 서고 속

으로 들어갔다.

2) 서적의 출신 국가별 종수와 해제

이미 앞서 메모 32종의 목록을 보인 바 있다. 여기서 어떤 책인지 좀 더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겠다.

전체 32종을 국가별로 따지면 조선에서 건너간 책이 12종, 중국이 10종, 일본이 10종이다.³⁰⁾ 이 가운데 중국 서적 10종도 중국으로부터 조선에 수입되어 있었던 상태였는지 모른다. 그리고 조선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까지 전부 조선의 책인 것은 5종이다.³¹⁾ 나머지는 중국의 책을 開刊한 것이다.

먼저 조선(활자)판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²⁾(번호는 메모의 순서를 나타낸다.)

(1) 治平要覽 조선활자판 129책

중국의 주나라부터 원대까지, 우리나라의 기자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대 史迹에서 주로 정치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사실을 가려 모아 150책의 巨帙로 엮은 官箴書이다. 세종의 어명이었고, 수양대군이 감독하였다. 그러므로 蓬左文庫本에는 총 21책이 缺卷되어 있는 셈이다. 甲辰字. 金銓(1458-1523) 內賜本. 內閣文庫³³⁾에 3책이 결권된 같은 책이 있다.

30) 이 구분은 蓬左文庫의 목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상술.

31) 千惠鳳은 위의 책에서 일본판 가운데 讀晦庵論語集解衍義를 추가하고 있다.

32) 서지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千惠鳳, 위의 책을 인용하였다. 아래에 서도 별도의 주를 달지 않은 경우는 그렇다.

33) 內閣文庫는 江戸時代의 官學인 昌平學校(도쿄제대의 전신 가운데 하나) 등에서 보관하던 전적을 모은 문고이다. 한국관련 서적이 풍부하고, 특히 善本이 많다.

(2) 晉書 조선판 47책

西晉과 東晉의 史實을 당나라 房玄齡(578-648) 등이 奉勅撰한 正史의 하나이다. 甲寅字. 內閣文庫에는 54책의 같은 책이 있다.

(3) 北史 조선판 51책

北魏, 北齊, 周, 隋의 역사를 李延壽가 찬술한 정사의 하나이다. 甲寅字. 내각문고에는 50책의 같은 책이 있다.

(5) 東文選 조선활자판 64책

성종의 어명으로 徐居正 등이 편찬한 역대 명문선이다. 乙亥字. 다만 蓬左文庫本은 初印이 아닌 重印으로 보인다.

(9) 策文 사본 1책

고려시대의 배중손, 안축, 이색 등의 책문을 抄編한 것이다.³⁴⁾

(10) 三國遺事 조선판 2책

경주부 李繼福이 중간한 正德本이 틀림없으나, 중간에 백지가 散出한다. 정덕본의 重印이 아닐까 한다.³⁵⁾

(12) 讀書(錄)要語 조선판 1책

程朱學者인 명나라 薛暄(1389-1464)이 독서하고 사색한 것을 모은 책이다. 蓬左文庫本은 乙亥字에 마멸이 생겼고 紙質 등을 고려한다면,

34) 蓬左文庫의 모든 목록에는 寫本이라고만 표시했으나, 내용으로 보아 조선본임이 분명하다. 천혜봉, 위의 책, p.199.

35) 重印에 대해서 千惠鳳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河廷龍은 가까운 시기 안에 重印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하정룡, ■삼국유사 사료비판■■ 서울:민족사, 2004, p.126.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더 이루어져야 한다. 5장에서 상술하였다.

명나라 정덕본이 들어와서 중종 후기에서 명종 연간에까지 사이에 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⁶⁾

(20) 唐韻³⁷⁾ 조선판 6책

원나라 楊士弘이 唐詩를 성당, 중당, 만당으로 구분하여 始音, 正音, 遺響으로 편찬한 것이다. 명나라 洪武 23년(1390) 博文堂이 刊刻한 책을 입수하여 조선에서 翻刻한 것이다. 경주부가 중종 37년(1542) 무렵 開刊한 것으로 보인다.

(21) 香山三体(法) 조선판 1책

당나라 白居易(772-847)의 문집에서 안평대군이 選編한 시집이다. 세종 27년(1445) 甲寅字로 初印되었고, 명종 20년(1565) 평안도 병마절도사 金德龍이 翻刻하였다. 이 판본이 蓬左文庫에 들어갔다. ■源氏物語(겐지모노가타리) ■이래 일본인이 선호한 시인이 백거이였던 점이 감안되어 선정된 것 같다.

(25) 列子 조선활자판 1책

蓬左文庫의 여러 목록에 조선활자판임이 명기되어 있다.³⁸⁾

(26) 續東文選 조선활자판 10책

중종 13년(1518)에 印出된 것으로 보이는 乙亥字 판본이다.

36) 千惠鳳은 이를 22권 8책이라 하였으니(위의 책, p.132), 혹 다른 종을 점검한 것일까?

37) 「寬政目錄」에서 '唐詩正音'이라 한 책이다. 한편 千惠鳳은 이 책의 이름을 '唐音'이라 하였다. 위의 책, p.203.

38) 千惠鳳은 위의 책에서 이를 빼뜨리고 있다. 필자도 蓬左文庫를 수차례 방문했으나 실물을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27) 學葩通辨(正續) 조선판 2책

명나라 陳建이 釋佛과 陸商山の 학문이 學葩 즉 正學을 覆暖하는 것으로 간주, 朱子文集 등 여러 책에서 관계되는 말을 인용하여 이를 通辨한 것이다. 조선에서는 선조 6년(1573) 전주에서 개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판본이 內閣文庫에도 있다.

이상 2종이 아니라 이 가운데 1종이 5종이 순수한 조선의 책이다. 治世의 교훈을 주는 2종의 책과, 조선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2종의 책이 적당히 안배된 가운데, 특별한 기준을 밝힐 수 없는 성격의 1종 곧 國語抄 선정된 모습을 보여준다. 후술하겠거니와, 蓬左文庫의 목록에서 처음에는 史部에 들어있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역사서로 골랐다가 보다는 어떤 다른 이유가 여기에 개재되어 있으리라 보인다.

참고로 중국의 10종과 일본의 10종은 그 이름만 밝혀 둔다.

중국본은 (14) 論學繩尺 당본 6책, (15) 公羊(傳)穀梁(傳) 당본 4책, (16) 國語(抄評) 당본 2책, (17) 全漢志傳 당본 2책, (18) 兩漢傳志 당본 3책, (19) 通俗演義 三國志傳 당본 10책, (22) 琴譜 당본 3책, (23) 太玄經 당본 2책, (24) 楚辭旁注 당본 1책, (28) 全唐風雅 당본 10[2]책이다.

한편 일본본은 (4) 群書治要³⁹⁾ 활자판 47책, (6) 源氏物語抄 사본 40책, (7) 齊民要術 金澤사본 9권, (8) 續日本紀 사본 13책, (11) 胡芦集 사본 2권, (13) 讀晦庵論語集解衍義 사본⁴⁰⁾ 1책, (29) 毛詩抄 사본

39) 일본 책으로는 유일한 활자본. 徳川家康이 駿河에서 慶長 21년(1616)에 조선 활자를 가지고 인쇄했다. 藤本幸夫, 駿河銅活字の正體を探る, 『歴史の花かご』, 東京: 吉川弘文館, 1998, p.41.

40) 『安永九年目録』 등에서는 寫本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千惠鳳은 이를 조선판으로 본다. 千惠鳳, 앞의 책, p.133. 다음절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같은

10책, (30) 江湖風月集抄 사본 2책, (31) 臨濟錄抄⁴¹⁾ 사본 1책, (32) 侍中群要 金澤本寫 10권이다.

3) 두 종류의 메모와 그 변화

현재 2부의 '금중에 빌려드린 서적의 메모'가 남아 있다고 하였거니와, 최초로 메모가 만들어진 것은 1624(寬永1)년 2월 25일로 알려져 있다. 義直(요시나오)가 尾張藩主가 된 지 10년 째, 곧 그의 나이 24세 때였다. 앞서 밝힌 대로 禁中은 後水尾(고미즈노오) 천왕을 가리키는데, 이 메모의 표지에 보이는 담당자 이름 가운데 横田三郎(요코다 사부로) 兵衛는 1617(元和3)년에 駿河御讓本을 받아들일 때 실무를 맡은 3명 가운데 한 사람⁴²⁾이다. 바로 막부로부터 금중 곧 조정에 대한 선물 공세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 메모 가운데 열 번째 책으로 '三國遺事 貳冊'이 보인다. 다섯 번째에 '東文選 六十四冊'이, 스물여섯 번째에 '續東文選 十冊'이 나온다.⁴³⁾

한편 두 번째 메모는 첫 메모보다 약 120년 뒤인 1743년 9월에 나온다. 이른바 '寬保三年目録'이라 불리는 총목록집의 일부로 실려 있다.

尾張藩에서는 1658(万治1)년에 처음으로 書物奉行을 두었다. 서적 관리의 전임 직원이 생긴 것이었다. 1712년에 임명된 須賀(스가)理右衛門親安는 <馬場御御文庫御書物目録>(1716-36년 사이)을 작성하는데, 이는 3책 중 1책만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그 전모를 알 수 없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엿보인다.

41) 「寬政目録」에는 '定光寺御寄附'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尾 張德川家藏書目録 5■, p.91.

42) ■尾 張德川家藏書目録 1■, p.263.

43) 자세한 해제는 앞에서 하였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에 두 번째 書物奉行에 취임한 赤林(아카바야시) 新助憲紀가 보다 더 정치한 목록을 만들어 낸 것이 이 ‘寬保三年目錄’이다. 書物奉行이 본격적인 서적 조사 후에 작성한 첫 수집자별 목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바로 이 목록의 제3책 권6에 〈禁中에 빌려드린 서적의 메모〉를 다시 신고 있다.

赤林가 왜 이 메모를 다시 실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書物奉行이 만드는 완벽한 목록을 목표하면서, 천왕에게 빌려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는 두 가지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이 메모를 빠뜨릴 수 없었던 것 같다. 문제는, 앞선 메모의 각주를 통해 밝힌 것처럼, 책 이름을 바로 잡기 위해 고치면서 생긴 차이는 차치하고라도, 첫 번째 메모와는 기재순서가 달라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메모의 목록 가운데 ■**삼** 국유사 ■**가** 가지는 의의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이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먼저 두 번째 메모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책 제목은 첫 번째 메모를 기준으로 그대로 두고, 寬政目錄에 와서 달라진 책 제목은 각주에서 일일이 설명했다. 번호는 역시 필자가 붙였다.)

1. 治平要覽 조선활자판 129책
2. 淸書 조선판 47책
3. 北史 조선판 51책
4. 群書治要 활자판 47책
5. 東文選 조선활자판 64책
6. 三國遺事 조선판 2책
7. 策文 사본 1책
8. 齊民要術 金澤사본 9권

9. 讀書要語⁴⁴⁾ 조선판 1책
10. 論語衍義⁴⁵⁾ 사본 1책
11. 論學繩尺 당본 6책
12. 公羊穀梁⁴⁶⁾ 당본 4책
13. 國語⁴⁷⁾ 당본 2책
14. 全漢志傳 당본 2책
15. 兩漢傳志 당본 3책
16. 三國志傳⁴⁸⁾ 당본 10책
17. 唐韻⁴⁹⁾ 조선판 6책
18. 香山三體⁵⁰⁾ 조선판 1책
19. 琴譜 당본 3책
20. 太玄經 당본 2책
21. 楚辭旁注 당본 1책
22. 列子 조선활자판 1책
23. 續東文選 조선활자판 10책
24. 學菴通辨⁵¹⁾ 조선판 2책⁵²⁾
25. 全唐風雅 당본 10[2]책
26. 毛詩抄 사본 10책
27. 續日本紀 사본 13책⁵³⁾

44) 寬政目錄에서는 '讀書錄要語'라고 되어 있다.
45) 寬政目錄에서는 '讀晦庵論語集解衍義'라고 되어 있다.
46) 寬政目錄에서는 '公羊傳穀梁傳'이라 되어 있다.
47) 寬政目錄에서는 '國語抄評'이라 되어 있다.
48) 寬政目錄에서는 '通俗演義三國志'라 되어 있다.
49) 御文庫御書籍目錄에는 唐詩正音이라 적었다.
50) 寬政目錄에서는 '香山三體法'이라 되어 있다.
51) 寬政目錄에서는 '學菴通辨正續'이라 되어 있다.
52) 寬政目錄에서는 10책이라 되어 있다.
53) '御讓之外'라는 주석을 붙였다.

28. 胡芦集 사본 2권
29. 江湖風月集抄 사본 2책
30. 臨濟錄抄 사본 1책⁵⁴⁾
31. 源氏物語抄 사본 40책⁵⁵⁾
32. 侍中群要 金澤本寫⁵⁶⁾ 10권⁵⁷⁾

두 번째 메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는 첫 번째 메모와 순서가 같다. 한편 두 번째 10~26도 첫 번째 13~29와 같다. 두 번째 6~9가 변화를 보이는데, '6. 三國遺事 조선판 2책'은 10번에서, '7. 策文 사본 1책'은 9번에서, '8. 齊民要術 金澤사본 9권'은 7번에서, '9. 讀書要語 조선판 1책'은 12번에서 각각 자리를 옮겨오고 있다. 여기에 재배열의 어떤 원칙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

다만 첫 번째 메모의 '6. 源氏物語抄 사본 40책'이 두 번째의 31로, '8. 續日本紀 사본 13책'이 27로, '11. 胡芦集 사본 2권'이 28로 각각 옮겨감으로 인해, 두 번째 메모의 27~32가 일본 서적으로 배열되었다는 점은 확실히 눈에 띈다.⁵⁸⁾ 그러나 이를 위해서만 굳이 재배열한 것 같지 않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요해 하지 않는 것은 ■삼 국유사■과 첫 메모 10번에서 6번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일본판이 뒤로 몰아져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가나, '7. 策文 사본 1책'과 '8. 齊民要術 金澤사본 9권'을 뒤로 돌리면서까지 ■삼 국유사■를 6번으로 올라와 있다. 이 이동의 의

54) 첫 번째 목록에서는 여기까지 쓰고 “合三十壹部”라 적었다.

55) 여기까지 쓰고 “右合三十一部”라 적었다.

56) 첫 번째 목록에서 이 다음의 朱記는 잘 보이지 않는다. 「寬保三年目錄」을 참고하면 “책수 483책 상자 수 10”이라 적었다.

57) 본디 메모에 들어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는 첫 번째 메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8) 이 같은 원칙대로라면 '10. 論語衍義 사본 1책'은 조선본일 가능성이 높다.

미를 캐는 데서, 尾張藩의 서적 담당자들이 ■삼 국유사■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5. 목록집에 보이는 『삼국유사』의 전승 경위

1) 初主 義直 시대의 목록

적어도 ■삼 국유사■가 德川家에 들어가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음은 앞의 〈禁中에 빌려드린 책의 메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尾張 德川家の 전체 목록으로 확대하여 ■삼 국유사■의 종적을 찾아가 보자.

앞서 밝힌 대로 22종 정도의 목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이 목록들로 인하여 尾張藩의 德川家가 도서의 수집과 보관 그리고 활용에 얼마나 적극적이며 과학적이었는지 확인 가능하지만, 더불어 ■삼 국유사■의 종적을 찾아가는 데에도 대단히 귀중한 역할을 해 준다. 22종 가운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목록을 義直(요시나오)의 시대로부터 설명해 나가기로 한다.

義直는 讓與 받은 도서를 정리 관리하고, 그 문고를 확충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래서 목록을 작성하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시했다.

그 결과로 나온 목록이 〈御書籍之目錄〉⁵⁹⁾ 2책이다. 이 목록은 寬永 연간(1624-1644)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寬永目錄이라 부른다. 이 목록의 제1책 '十四'箱에 '三國遺事 西 二冊'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는 ■삼 국유사■가 열네 번째 상자이면서, 동서로 나눈 보관소의 서쪽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寬永目錄은 現傳하는 가장 오래된 목록이다. 조선의 책은 임진왜란

59) ■尾 張德川家藏書目錄 1 ■소재.

(1592-1598) 중에 쓸어간 것이었을 터이고, 尾張藩이 자리를 확고히 잡은 것이 1610~20년경이므로, 置藩 이후 거의 때를 같이 하여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보다 앞서 만든 목록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특히 앞서 살펴 본 <禁中へ御借シノ御書籍之覺>⁶⁰⁾ 1책이 1624(寬永1)년 2월 25일에 만들어졌으므로, 이 둘 사이에는 모종의 관련성이 엿보인다.

한편 <御書籍目錄>⁶¹⁾ 1책은 1651(慶安4)년 3월 26일에 만들어졌는데, 이를 慶安四年尾張目錄이라 별칭하거나, 목록 중간쯤에 ‘三國遺事 二冊’이라 기록하여 있고, 바로 1년 전 요시나오가 죽고 아들인 미츠토모 측근을 포함한 중신으로부터 儒者나 祐筆 등에게 책을 맡긴다는 連署와 捺印이 보인다. 이는 서적을 인계하는 連判目錄이다. 義直는 자기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문고의 관리에 철저를 기했던 것이다.

이 시기 ■삼 국유사■를 禁中에 빌려준 책 가운데 들어갔고 이는 ■삼 국유사■과 두고두고 특별취급을 받는 계기가 된다.

2) 18세기 목록 속의 『삼국유사』

義直가 죽고 <御書籍目錄>이 만들어진 다음, 본격적인 서적 관리를 위해 1658(万治1)년에 처음으로 書物奉行을 둔다. 서적관리의 전임 직원이었다. 1712년에 임명된 須賀理右衛門親安이 18세기 들어 처음으로 <馬場御御文庫御書物目錄>(1716-36년 사이)을 작성하는데, 3책 중 1책만 전승되어, 이 안에서는 ■삼 국유사■를 기록한 대목을 볼 수

60) 위의 책 소재.

61) 위의 책 소재.

없다.

그 다음 書物奉行으로 보이는 赤林新助憲紀가 〈馬場御文庫御藏書目録〉⁶²⁾ 3책을 만들었다. 1743(寬保3)년 9월의 일이다. 이는 寬保三年目録 卷五~七이라 불리지만, 바로 제3책 권6에 〈禁中へ御借シノ御書籍之覺〉을 다시 두고, 그 가운데 여섯 번째로 ‘一 三國遺事 二冊’을 적어 넣은 바로 그 목록이다. 앞서 밝힌 대로 書物奉行이 본격적인 서적 조사 후에 작성한 수집차별 목록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松平太郎右衛門秀雲이 기록한 〈馬場御文庫御藏書目録〉⁶³⁾ 4책은 더욱 큰 의미를 띠는 목록이다. 1780(安永9)년 2월에 만들어져 安永九年目録이라 불리는 이 목록에는 제1책에 ‘一 三國遺事 同⁶⁴⁾ 二冊’이라 적혀 있지만, 松平은 尾張藩을 대표하는 유학자로 1743년 書物奉行이 되어 38년간 근무하였는데, 앞선 목록을 토대로 더욱 철저히 서적을 조사하여, ■삼 국유사■를 비롯한 서적의 出自까지 확실히 하였다. 곧 板의 由來를 기록한 첫 목록으로, ■삼 국유사■와 朝鮮板임을 알 수 있게 한 최초의 기록인 것이다.

한편 이 목록의 松平은 마지막에 駿河御讓本이 尾張·紀伊·水戸의 三家에 나뉘질 때, 제비뽑기를 했다고 적었다.⁶⁵⁾ 이 기록은 年長の 尾張 義直에게 善本이 물려졌다는 통설과 배치된다.

두 기록 사이의 어느 쪽이 사실일까?

당초 5·5·3으로 나누어진 家康의 유물은 서적만이 아니었다. 골동과 서화로도 많은 유물을 남겼는데, 사실 재산의 가치로 보면 이쪽이 더 큰 것이고, 자칫 분쟁의 소지도 더 높았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가

62) ■尾 張德川家藏書目録 2 ■소재. 그러나 이 이름은 다음 목록의 잘못된 표기. 실제는 寬保三年目録의 淸書本이다.

63) ■尾 張德川家藏書目録 3 ■소재.

64) 同은 朝鮮板을 이룸.

65) ■尾 張德川家藏書目録 3 ■,■ p.313.

치가 적게 여겨지는 서적만 義直가 선본을 차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는 어려서부터 서적을 아꼈고, 물려받은 이후 치밀하게 보존 관리한 것을 보아도 전후사정은 짐작이 간다.

松平를 이어 書物奉行이 된 河村七郎秀穎의 노력⁶⁶⁾으로 만들어진 〈御文庫御藏書目錄〉⁶⁷⁾ 5책은 목록 자체로 한걸 진보한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까지는 수집자별로 나열하는 데 그쳤으나, 經史子集과 和書로 5대 분류하고, 다시 수집자별로 분류 배치하였다. 서적의 분류를 보다 치밀하게 한 것이다. 이는 1782(天明2)년에 만들어져 天明二年目錄이라 불리거니와, 제2책 '史類'의 '雜史'에 '地 三國遺事 朝鮮板 二冊'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여기서 地는 駿河御讓御書籍의 歷史類⁶⁸⁾를 가리킨다.

이 목록은 내용분류로도 처음인데, 이에 따라 ■삼국유사■물 史類로 규정된 첫 목록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때로부터 ■삼 국유사■물 비록 雜史라는 하위항목에 들어가지만 어엿이 역사서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만큼 내용 파악이 되었다는 뜻도 된다.

寬政目錄이라 불리는 〈御文庫御書籍目錄〉⁶⁹⁾ 6책은 寬政 연간(1789~1801)에 나오는데, 深田彦九郎正益(1784-1792 書物奉行) 또는 庵原新九郎守富(1793년 書物奉行 취임)⁷⁰⁾가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집자별 목록과 내용분류 목록을 융합하여 작성하였다.

이 목록의 제1책 '史'에 '一 三國遺事 三十八 禁中借戾之內 朝鮮板 二冊'이 나온다. 여기서 '禁中借戾之內'는 작은 글씨로 朱書되어 있다.

66) ■尾 張德川家藏書目錄 4 ■소재.

67) 위의 책, p.11.

68) 예를 들어 駿河御讓御書籍의 經書類는 天, 諸子類는 玄, 文集類는 黃, 佛書類는 宇 등으로 표기한다.

69) ■尾 張德川家藏書目錄 5 ■소재.

70) 위의 책, p.11.

이 朱書가 중요하다. 실은 이 목록에는 다른 책에도 朱書로 書誌나 傳來事情을 해설한 부분이 방대한데, ■삽 국유사■를 비롯하여 禁中에 빌려주었던 책들에는 '禁中借戾之內'라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처음 기록인데, 무슨 까닭이 거기에는 개재되어 있을까?

이 목록에는 목록이 만들어진 지 40여 년이 지난 1836(天保7)년 6월 寺山虎助가 교정을 보았다는 기록⁷¹⁾이 보인다. 이는 明治維新(1868)이 나기 불과 32년 전의 일이다. 방대한 朱書들은 그가 써 넣었던 것일까? 막부의 운명이 氣息奄奄한 시기였다. 결국 尾張藩의 德川家 서적 가운데 일부는 유신 후 1872(明治5)년부터 4차에 걸쳐 판매하게 된다. 막부체제가 무너진 이상 더는 서적의 관리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팔린 책들은 바로 이 목록을 가지고 제목 위에 '拂'이라는 도장으로 표시를 했다. 대체로 복본 위주의 판매였다고는 하나, '禁中借戾之內'라 주서된 책 가운데서도 5종(群書治要·源氏物語抄·讀書要語·楚辭旁注·列子)은 시대의 운명을 피해 가지 못하였다. 그나마 이때 ■삽 국유사■를 팔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판매를 한 책의 표시를 이 목록을 가지고 했고, 가필된 듯한 朱書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목록은 尾張 德川家 서적의 열람이나 조사에서 두고 두고 긴요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寬政目録에서 '禁中借戾之內'라는 朱書가 ■삽 국유사■에 쓰인 것은 이후 明治 후기의 도쿄제국대학 사치총서 편집자에게 모종의 암시를 건네주는 역할을 했음도 추측 가능하다.

한편 이 시기에 寬政目録과 유사한 목록으로 3종을 더 볼 수 있는데, 〈御文庫御書物目録〉⁷²⁾ 3책은 1796(寬政8)년 12월에 교정했다는

71) 위의 책, p.17.

72) 蓬左文庫 청구기호 148-30. 山本佑子, 위의 해설, p.16.

기록으로 그 작성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관정목록의 改正抄寫本으로 보이나,⁷³⁾ 그 반대일 가능성도 있다. 書物奉行 庵原新九郎가 만들었고, 上冊에 ‘三國遺事 朝鮮板 二冊’이라는 관련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東西御文庫入記>⁷⁴⁾ 2책은 1799(寬政11)⁷⁵⁾년에 서고를 동서로 나누고 책을 들이면서 새로 작성한 목록이다. 내용은 앞의 관정목록과 거의 같다. 乾冊의 史類에 ‘一 三國遺事 同⁷⁶⁾ 二冊’이라 표기한 ■**삼** 국유사 ■**눈** 東之部の 駿河御讓本에 들어 있다.

마지막으로 <駿河御讓御書物目錄>⁷⁷⁾ 8책은 寬政年間을 지나 1810(文化10)년 경에 만들어졌는데, 御書物目錄(駿河御讓本·源敬様·瑞龍院様)이라는 별칭을 지닌 이 목록의 제2책에 ‘一 三國遺事 禁中借戻之内 朝鮮板 二冊’이라 하였고, 이는 앞의 寬政目錄을 그대로 전사한 듯하다. ■**삼** 국유사 ■**에** 대한 서지기사도 똑 같다.

3) 明治維新 전후의 목록

19세기에 들어 세계는 가파른 변화를 보인다. 일본 또한 여기서 예외일 수 없었다. 철저한 쇄국정책을 고집하던 江戸(에도) 막부는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을 거역하기 어려웠다. 미국인 페리는 1853년 6월에 浦賀(우라가), 이듬해 1월에는 江戸灣(에도만)으로 들어와 개항을 요구했다. 막부는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막부 체제의 종말을 고하는 서곡과도 같았다.

73) 山本佑子, 위의 해설, p.16.

74) 蓬左文庫 청구번호 148-96. 山本佑子, 위의 해설, p.16.

75) 山本는 실제로 寬政 12년이라 보고 있다. 山本佑子, 위의 해설, p.16.

76) 朝鮮板임을 나타낸다.

77) 蓬左文庫 청구번호 148-44.

이 시기를 전후한 尾張 徳川家の 서적목록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먼저 〈尾州江戸共御側御書物目錄〉⁷⁸⁾ 1책은 1816(文化13)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文化十三年御側御書物目錄·和書라고 불리는데, 御側御書物이란 尾張藩의 奥御文庫와 江戸邸의 문고를 아울러 부르는 것으로, 책이 전부 일본어로 쓰인 것이어서 끝에 和書を 첨가한 것이다. 이때 尾張藩에서는 도쿠가와 三大家의 하나인 田安家에 목록을 제출할 일이 있었던 듯⁷⁹⁾한데, 아쉽게도 일본 책을 수록한 坤卷만 남았을 뿐 漢籍을 수록한 것으로 보이는 乾卷은 지금 전하지 않는다. 그런 사정으로 ■삼 국유사■는 보이지 않는다.⁸⁰⁾

다만 內閣文庫 장서를 통해 확인은 가능하다. 〈尾藩御文庫御書目〉⁸¹⁾ 5책은 文化 13년에 田安家에 제출되었던 淸書本을 內閣文庫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같은 해에 만들어져 文化十三年目錄·田安家舊藏이라고도 불리고, 제1책에 ‘一 三國遺事 同⁸²⁾ 二冊’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개항 직전인 1847(嘉永1)년 경에 만들어진 〈御文庫御書物便覽〉⁸³⁾ 4책은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겨준다. 御書物便覽·國書之部라고 불리는 이 목록 또한 國書之部(일본 책)만 남아 있다. 이는 단순한 목록을 넘어 책 소개를 겸한 편람이었다. 漢籍之部가 전해진다면 거기에 적힌 ■삼 국유사■에 해제를 통해 여러 가지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細野要齋忠陳은 深田增藏正昭(天保 2년·1831년 경 書物奉行 취임)의 요청을 받고, 漢籍之部の 편람 작성을 맡았다. 그 草稿 몇 책

78) ■尾 張徳川家藏書目錄 7 ■소재.

79) 위의 책, p.145.

80) 그러나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朝鮮國王書翰, 朝鮮人來朝記, 朝鮮人覺書 같은 통신사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81) ■尾 張徳川家藏書目錄 7 ■소재.

82) 同은 朝鮮板을 이룸.

83) ■尾 張徳川家藏書目錄 9 ■소재.

이 이루어졌을 시점에 正昭가 죽어(嘉永 3년 · 1850), 초고는 빛을 보지 못하고 要齋의 수중에 남아 있었다. 이 초고에 ■삼 국유사■의 편람도 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몇 사람에게 공람을 시켰으나 초고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要齋가 正昭로부터 편찬 지시를 받은 것은 바로 1847(嘉永1)년이었다.⁸⁴⁾ 漢籍之部の 초고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1850년은 개항(1854) 4년 전, 明治維新(1868)이 나기 불과 18년 전이다.

要齋는 이름이 忠陳이었고, 자는 子高, 尾張藩의 藩臣이었다. 中村直齋, 深田香實에게서 배웠다. 1853(嘉永6)년 藩의 典籍이 되었고, 1868(明治1)년 教授가 되었다. 侍讀 侍講을 겸하고 督學의 일을 행했다. 1869(明治2)년에 漢學教授가 되고, 1878(明治11)년에 죽었다.⁸⁵⁾ 그가 明治維新 이후 도쿄의 한학 출신 관료⁸⁶⁾들과 어떤 교분을 나눴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도쿄의 그들로서는 尾張藩 서적의 상황을 듣기에 要齋만한 이가 없었을 것이다.

근대 일본은 이 무렵 왕정복고 선언 · 大政奉還(1867)을 거쳐 막부정치가 막을 내리고 明治(메이지) 천왕이 無血開城(1868)하는 것을 계기로 유신시대가 막을 올린다. 이때 尾張藩은 막부타도파인 신정권에 참여했지만, 앞서 밝힌 대로 그다지 큰 혜택을 입지 못한다. 廢藩置縣(1871)⁸⁷⁾을 거치면서 안정되기 시작한 明治政府에서 도리어 尾張 徳川家の 서적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게 되고 마는 것이다. 廢藩置

84) 細野要齋忠陳 官庫襍記, ■尾張徳川家藏書目錄 10 ■, 東京:ゆまに書房, 1999, p.579.

85) 위의 책, p.641.

86) 문부성과 대학 창설에 관여한 일군의 한학자를 이른다.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좀 더 소개한다.

87) 이 때 설치된 현은 부와 개척사를 포함 무려 306개였다. 1888년 말에 이르러서야 지금과 같은 1개척사3부43현의 체제를 갖춘다. 1개척사3부는 지금의 1都1道2府이다.

縣의 바로 다음 해부터 서적의 상당 부분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란 여기서 연유한다. 목록 또한 1847년경에 만들어진 〈御文庫御書物便覽〉 이후 소식이 없다.

그러다가 〈駿河御讓御書物伊呂波分〉⁸⁸⁾ 1책이 1899(明治32)년에 만들어진다. 이는 明治維新期에 尾張德川家 서적이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50음순으로 정리된 목록의 표지에는 ‘德川邸 什器係가 明治 32년 2월에 조사했음을 명기하고 있다. 지금과는 체제를 달리한 이 목록은 다분히 활판 인쇄를 염두에 둔 원고가 아닌가 싶다. 거기에 ■삼 국유사■는 ‘三國遺事 朝鮮板 御箱 第十号 二册’이라고 적힌 데서 발견된다.

이 목록이 나온 明治 32년이라면 史誌叢書가 간행되기 시작한 1897년의 2년 뒤, 총서의 하나로 ■삼 국유사■가 발행되기 불과 5년 전이다.

한편 明治維新 전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목록이 몇 종 있다. 〈御書物目錄〉⁸⁹⁾ 3책에는 上册에 ‘一 三國遺事 同⁹⁰⁾ 二册’라 하였고, 〈改正御書物目錄〉⁹¹⁾ 3책에는 1册에 ‘一 三國遺事 朝鮮板 二册’이라 하였는데, 이는 앞의 목록의 개정판인 듯하다. 그리고 〈駿河御讓御書籍部類分目錄〉⁹²⁾ 1책에는 雜史에 ‘三國遺事’라고만 적었다. 목록의 葉에 ‘德川家’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明治期の 목록으로 보인다.

시기를 알 수 없는 목록 가운데 〈駿河御讓御書物目錄〉⁹³⁾ 1책은 매우 중요한 기록이 눈에 띈다. ‘三國遺事 季瑠 扑佺 安塘 翻刻 貳册

88) 蓬左文庫 청구기호 148-19.

89) 蓬左文庫 청구기호 148-42.

90) 朝鮮板임을 나타낸다.

91) 蓬左文庫 청구기호 148-40.

92) 蓬左文庫 청구기호 148-51.

93) 蓬左文庫 청구기호 148-81.

東上 1函 15番'이라 적었거니와, 季瑠, 朴侏, 安塘 세 사람이 飜刻을 했다는 기록은 여기서 처음 보인다. 그들이 누구이며, 무슨 번각을 했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 목록이 大正期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그것이 사지총서와의 관련을 말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葉에 '蓬左文庫'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1912(大正1)년 무렵에 德川義親에 의해 명명되었고, 이듬해 蓬左文庫 최초의 목록이 만들어졌다. 이는 그 원고로 보인다.

6. 德川本 『삼국유사』 전승의 의의

이상에서 德川家 소장의 ■삼국유사■가 어떻게 보관 관리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

尾張 德川家は 천왕에게 보내는 32종의 서적 속에 ■삼국유사■를 포함시켰고 이런 사실로 인해 이후 이 집안에서 대대로 ■삼국유사■를 특별한 취급을 받았다. 이렇듯 무척 소중하게 보관 관리된 ■삼국유사■는 파손이나 인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 들어 한국의 역사를 심도 깊게 연구해야 했던 明治期 사학자들에게 쉽게 눈에 띄어 줄 수 있었다. 비록 그들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史誌叢書의 하나로 간행하자고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삼국유사■는 20세기 들어 다른 어떤 책보다도 화려하게 조명되는 재발견의 계기를 얻게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고민거리'란 무엇을 이룸인가.

明治 27년은 1894년, 곧 청일전쟁이 일어난 해이다. 이 연도와 관련해서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 일본의 사학계

가 조선사 연구에 관심을 갖고 그 성과물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왜 그때부터인가는 굳이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될 듯하다.

白鳥庫吉(시라토리 쿠라기치)⁹⁴⁾가 「檀君考」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 1894년 1월이었다.⁹⁵⁾ 여기서 그는 ■삼 국유사■의 단군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일본에서 ■삼 국유사■의 논문에 인용된 첫 사례일 것이다.⁹⁶⁾ 이어 12월에 「조선의 古傳説考」를 발표하는데,⁹⁷⁾ ■삼 국유사■의 단군설화를 다시 인용하면서, ‘妄誕의 극치’이지만 ‘다소의 사실을 찾아보고자’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소의 사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白鳥는 ■삼 국유사■를 처음 보았을 때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삼 국사기■는 중국의 사적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표절했다.(중략) ■삼 국유사■는 오리지널 現物을 가지고 있으나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삼 국사기■는 다는 이 ■삼 국유사■의 것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 점에서 나는 ■삼 국사기■는 다는 ■삼 국유사■ 쪽이 가치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⁹⁸⁾

막부 시절에도 ■삼 국통감■ 같은 책을 통해 조선의 사정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지만, 근대적인 학문연구 역량을 갖춘 유신기의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매우 부실한 어떤 것으로 보였다. ■삼 국사기■ 같은 새로

94) 시라토리 쿠라기치(1865~1942) : 千葉 출신. 도쿄제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이 대학의 교수로 제자를 길러냈다. 얼마 전에 찾아온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을 도쿄제대로 가져 간 핵심 인물이었다.

95) 白鳥庫吉, 「檀君考」, ■學 習院輔仁會雜誌 ■ 28, 東京:學習院大學, 1894.

96) 이에 비해 ■삼 국사기■는 이미 1891년 林 泰輔의 논문에 인용되고 있고, 이듬해 본격적인 ■삼 국사기■의 해제가 나오기도 한다. 坪井九馬三, 「新羅高句麗百濟三國史」, ■東 學雜誌 ■ 65, 東京:日本史學會, 1892.

97) 白鳥庫吉, 「朝鮮の古傳説考」, ■東 學雜誌 ■ 57, 東京:日本史學會, 1894.

98) 白鳥庫吉, 訪書談, ■白 鳥庫吉全集 ■ 10, 東京:岩波書店, 1970. 실제 이 원고는 1910년 11월 3일의 전국도서관대회 강연으로 쓰였다.

운 자료를 발굴하면서, 일본사의 우월성과 한국사의 약점을 찾아내자 애쓰는 과정에 그다지 큰 애로가 없었다. 그런데 거기서 뜻밖에 ■살 국유사■라 는 복병을 만난다. 瞥見해서도 ■살 국유사■를 그들에게 결코 유리한 자료가 아님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망탄’이라는 혹평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다소의 사실’을 찾겠다고 말한다. 그는 분명 다른 사료에서 볼 수 없는 ■살 국유사■에 매우 특이한 점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오리지널 現物’이라는 말에 그가 가진 생각의 핵심이 있다.

白鳥 같은 학자가 처음에 어떻게 ■살 국유사■를 볼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別稿로 충분히 설명하고자 하나, 사지총서의 ■살 국유사■가 간행되기 이미 10년 전에 그는 사본으로든 원본으로든 ■살 국유사■를 보았고, ‘오리지널 現物’의 위력을 직감했다. 그는 아마도 神田本을 보았을 터이다.

神田本の 神田는 神田 남작 곧 神田孝平(칸다 다카히라)⁹⁹)라는 이를 지칭하는 말로, 그는 문부성에서 제국대학 창설의 일을 맡은 바 있고, 兵庫縣의 현령을 지낸 다음에는 東京學士會院의 구성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제국대학 교수이자 학사회원의 회원인 白鳥와는 빈번한 교제가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런 인연으로 白鳥는 神田의 책을 빌려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의 존재를 좀 더 분명히 밝혀준 이는 今西 龍(이마니시 류)이다. 임진왜란 때 퇴각하는 일본군이 가져간 두 본은, 加藤清正(가토 기요마사)의 것이 徳川家康에게 바쳐졌고, 浮田秀家(우키다 히데이

99) 칸다 다카히라(1830~1898) : 岐阜 출신. 일찍이 서양학을 배워 明治維新 양학자 특히 明六社의 동인이 되어 함께 활동했다. 兵庫縣令으로 이름을 날렸고, 퇴관 후 고고학 연구에 전념했다. 1894년에 男爵이 되었다. 그의 양아들 乃武(나이부)는 미국에 유학하여 영어학자가 되었으며, 도쿄제대 교수 시절에는 夏目漱石를 가르치기도 했고, 초대 도쿄외국어학교(지금의 도쿄외대) 교장을 지냈다. 神田乃武 편, 神田孝平略傳, ■ 1910. 尾崎 護 僞 き聲にて語れ-元老院議官 神田孝平 ■, ■ 東京:新潮社, 1998.

에)의 것은 제 아내의 병을 낫게 해 준 의사 正琳(소린)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 책이 유신 이후 神田 남작에게 넘어갔다.¹⁰⁰⁾ 今西는 神田本에 正琳의 장서를 입증하는 ‘養安院藏書’라는 도장이 찍혀있다고까지 말한다. 양안원은 正琳의 당호이다.

그런데 이 본이 지금 전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正琳의 장서 목록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正琳이 남긴 장서목록은 지금 두 종을 확인할 수 있는데, 후손이 지은 그의 전기에 조선서 17종 193책, 의서 18종 54책 총 35종 247책이 남은 첫 번째 목록,¹⁰¹⁾ 1799(寬政11)년에 만들어진 서적목록에 조선서 8종 64책, 의서 3종 21책 총 11종 85책이 남은 두 번째 목록,¹⁰²⁾ 도합 46종 332책의 목록 가운데 ■살 국유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는 1717(享保2)년 正琳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타고 남은 책의 목록일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神田는 양안원장서의 ■살 국유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일까.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위의 正琳 장서목록에 ■살 국유사■가 빠졌을 경우, 다른 하나는 사본으로 남아 있었을 경우이다. 빠진 경우란 1717년의 화재로 이미 유실되었다는 것이요, 사본으로 남은 경우란 유실 이전에 사본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둘을 합쳐 생각해 보면 神田本은 원본이 아닌 필사본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어찌 되었건 明治期 연구자들에게 ■살 국유사■에 대한 믿음은 神田本으로 불충분했으리라 보인다. 저자, 체제 등만으로도 ■살 국유사■는 지금까지 서지상 여러 가지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뜬금없는 사본 또는 개인 소장본 하나를 가지고, 조선 연

100) 今西 龍, 「正徳刊本三國遺事に就て」, ■典籍之研究■ 5, 1926.

101) 京都府醫師會醫學史編纂室, 京都の醫學史, ■京都: 思文閣出版, 1980, pp.258~259.

102) 위의 책, p.260.

구의 족적을 크게 남겨야 하는 시점에서 연구자들이 자료로 불쑥 내밀기 어려웠으리라는 것이다.

저들이 먼저 존재를 알고 이용했던 ■**삼** 국사기■**말** 해도 사정이 달랐다. ■**삼** 국사기■**본** 加賀藩의 다이묘 前田利家(마에다 토시이에)가 가지고 있었다. 前田는 다른 번의 다이묘들이 임진왜란 때 탈취해 간 전적을 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쓰)에게 바치는 와중에도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 뒤 가문의 3세, 5세 등이 잇달아 수집한 서적과 합쳐 前田家の 尊經閣文庫藏書를 이루었다.¹⁰³⁾ 여기에 ■**삼** 국사기■**과** 있었고, 사지총서 또한 마지막 번호에 이를 저본으로 끼워 넣어 출판했다.¹⁰⁴⁾ 적어도 出自에 대한 이만한 믿음이 선행하지 않고서는 선뜻 사료의 위치를 점하지 못했으리라.

그렇다면 德川家 ■**삼** 국유사■**본** 神田本이 지닌 이런 아쉬움과 불안을 일거에 날려버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더욱이 그것이 저들 천왕의 親見까지 마친 책임에 있어서라.

사지총서 편찬자의 한 사람인 坪井九馬三(츠보이 쿠메조)는 白鳥(시라토리)와 거의 같은 무렵에 ■**삼** 국유사■**본** 처음 보았던 것 같다. 그는 조심스러운 해제를 한 편 써서 발표한다. 그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다.

■**본** 국여지승람 ■**권6** 경기도 고마한삼역의 주에 본서를 인용한 다음 “이 책은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 고려 중엽 이후에 나왔다.”고 하여, 찬술자가 자세하지 않고, 또 찬술연대도 정밀히 알지 못하다고 했지만, 이계복의 발에 있기로는 분명히 정덕 7년 재판, 본

103) ■**본** 經閣文庫漢籍分類目錄 ■**東京**: 侯爵前田家尊經閣, 1934.

104) 日下 寛는 저간의 사정을 짐작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其書流傳 加賀前田氏藏史記一部 … 前田氏所藏 稱爲加賀本 古色蒼然 疑李繼福刊本矣”(「校訂三國史記序」, ■**鹿** 友莊文集 ■**卷一** 張二十六).

권5의 머리에는 ‘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鏡冲照大禪師一然撰’이라 서명되어 있다. 찬술자의 서명은 매권 머리에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초판본이 벌써 斷爛되어서, 그것을 轉寫하는 사이 筆工 등이 疏漏한 데다, 나아가 脫誤를 생겨나게 했기 때문인가 한다. 본서를 정독함에 한 사람이 찬술한 것이 틀림 없다면, 단연코 전5권을 승 일연의 찬술로 받아들여야겠다.¹⁰⁵⁾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제기되었던 ‘일연 찬술의 의구심’을 뜻밖에도 坪井(츠보이)는 처음부터 명확히 거부하고 있다.

坪井은 이 시점에서 德川本 ■살 국유사■를 보았으리라 확신된다.¹⁰⁶⁾ 白鳥만 해도 神田本類의 사본(?)을 통해서나 ■살 국유사■에 접했다면, 드디어 坪井은 德川家에 의연히 전해지던 실물을 볼 수 있었던 것인데, 한국의 고대사와 문화의 연구에서 이 책을 빼놓을 수 없음을, 아니 이 책부터 다시 시작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음을 직감했던 듯하다.

사지총서의 또 다른 편찬자 日下 寬(쿠사카 히로시)¹⁰⁷⁾는 ■살 국유사■에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엮은 바가 神異 靈妙하고 오로지 崇佛 弘法에 주력하여, 어떤 논자는 망탄하고 不經하여 죽히 믿을 바 못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행한 풍속이 그 안에 여기저기 흩어져 보이고, 심지어 주와 현

105) 坪井九馬三, 「三國遺事」, ■史 學雜誌 ■ 제11편 9호, 東京:日本史學會, 1900, pp.59~60.
106) 츠보이는 ■살 국유사 ■해제보다 8년 앞서 ■살 국사기 ■에 해제를 썼는데, 여기서 德川家の 愛冊으로 인한 곤란을 슬며시 비친 적이 있다. “본서는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본에는 傳寫의 잘못이 무척 많아서, 德川義禮 侯爵藏本을 가지고 그 표준본을 삼아야 할 터이지만, 나는 아직 이 본을 보지 못했다.”(新羅高句麗百濟三國史, ■史 學雜誌 ■ 65, 東京:日本史學會, 1892, pp.72-73) 그러나 실제 德川家에 ■살 국사기 ■는 없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츠보이의 정보는 정확하지 못했다.
107) 쿠사카 히로시(1852-1926) : 千葉 출신. 漢學者. 史料編纂掛 겸 東京帝國大學 문과대학 강사. 문집으로 ■魔 友莊文集 ■(6권)이 있다.

과 도시 그리고 지세와 연혁이 뚜렷이 징험할 만하다. 삼국의 옛 사실을 재구하자면, 采葑采菲¹⁰⁸⁾ 어찌 이를 쉬 버리랴.¹⁰⁹⁾

앞서도 밝혔지만, 사지총서의 두 편찬자는 尾張 德川家の 日記類를 중심으로 이 총서를 엮어냈다. 江戸期の 역사를 아는 데 이만한 사료가 없고, 그 사료가 전승되기로는 尾張藩의 서적관리만한 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德川家の 서적을 열람하는 가운데 그들은 ■삼 국유사■를 발견했고, 이 집안에서 대대로 특별취급을 받아오던 이 책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다 분명히 인식했던 것이다. ‘오리지널 現物’이라는 앞선 평가에 이어, ‘확실한 일연의 찬술’ — ‘采葑采菲’로 이어지는 저들의 시각을 확인하다보면, 오늘날 우리로서는 안도와 탄식의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다.

7. 마무리

이상에서 논한 바를 요약하는 일은 생략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德川本 ■삼 국유사■는 20세기에 있어 ‘삼국유사의 재발견’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무엇보다도 사지총서의 편집자가 ■삼 국유사■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德川家에서는 조선에서 들어온 어떤 책보다도 ■삼 국유사■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조선의 고대사를 특이한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일연의 저술태도에 흥미를 가졌던 것이다. ■삼 국사기■에서 출발하여

108) 采葑采菲無以下體에서 온 말. 뿌리와 줄기를 다 먹는 무에 비유하여, 맛있는 뿌리라고 해도 줄기가 맛있다면 합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일부가 나쁘다고 전부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비유이다.

109) 日下 寬, ■鹿 友莊文集■, 卷一 張二十八.

■高麗史■와 ■東國通鑑■로 이어지는 中國流의 正史體制 곧 유학적 역사인식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지총서 편집자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마침 조선의 고대사를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明治期 이후 사학자와 문학자들에 의해 ■삼 국유사■를 떨떠름한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도 받아들여졌다. 이 점이 바로 조선조의 유학자들이 가졌던 태도와 명확히 대비되는 부분이다.

德川家 ■삼 국유사■의 전승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 책에 대한 인식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서로 달랐음을 알 수 있고,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가치를 인정해 준 쪽에서 기회를 만들어 '재발견'으로 이어졌다면, 그에 대한 평가에 인색할 일은 아니라 여겨진다. 깊은 인식과 열린 시각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투고일:07.12.27 심사완료일:08.04.25)

핵심어: 삼국유사, 삼국유사의 재발견, 尾張藩, 蓬左文庫, 문과대학사지총서, 尾張德川家藏書目錄

<Abstract>

Study on the Owari han(尾張藩) and transmission of
Samguk-Yusa(三國遺事)

Ko, Woon-Kee *

Samguk-Yusa had a decisive opportunity of reevaluation after it came to in *Bunkadaigakusisousyo*(文科大学史誌叢書) of Tokyoteidai(東京帝大) version in 1904. The preface of *Samguk-Yusa* of *Bunkadaigakusisousyo* states that this book was based on Tokugawa-hon(徳川本) and Kanda-hon(神田本). Now Kanda-hon does not exist. However, there is a material which shows us Tokugawa-hon's transmission process, which is *Owaritokugawakezousyo*(尾張徳川家藏書目録, 10 volumes) in *Hosabunko*(蓬左文庫). This paper will explore how *Samguk-Yusa* was dealt with and taken in custody in Owarihan Bunko for 300years since 17th Century.

Owaritokugawake(尾張徳川家) includes *Samguk-Yusa* among 32 kinds of books which were given to Imperial, so in this family *Samguk-Yusa* was special treatment for several generations. Because of this careful custody, *Samguk-Yusa* escapes not only danger of damage and destruction, but also could be attractive to historians in Meiji period who had to study Korean history seriously after late 19th Century. Even though it gave them new problems, the Editor of *sisousyo*(史誌叢書) decided that *Samguk-Yusa* was printed by one of those *Sousyo*. That is why this *Samguk-Yusa* could have

* Research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opportunity for special recovery more than any other book in the 20th century.

To conclude, *Samguk-Yusa* of Tokugawa-hon(德川本)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recovering this book in the 20th century because the Editor of *sisisousyo* (史誌叢書) greatly served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Samguk-Yusa*.

Key Words : *Samguk-Yusa*(三國遺事), revaluation of *Samguk-Yusa*, *Bunkadaigakusisousyo*(文科大學史誌叢書), *Owaritokugawakezousyo*(尾張德川家藏書目錄), *Hosabunko*(蓬左文庫).